

화순군립요양병원, 전남 1호 치매안심병원 지정

경·중증치매환자 치료·관리 가능한 의료기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화순군립요양병원이 전남 1호이자 전국 11번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치매관리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이 동반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전용 시설(전문병동) 및 장비·인력 등을 갖춘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화순군립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까지 치매전문병동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일반병동 2층과 3층을 126병상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으로 리모델링 했고, 치매환자의 안전과 효율적 돌봄을 위한 치매 친화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등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치료병상 전환 운영, 환자수 감소,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승인받은 3층 치매안심병동 60병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향후 운영상황을 고려해 잔여 치매전문병동(63병상)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최초 치매

안심병원으로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자연친화적 환경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기존 치매안심병원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남 치매안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호경 기자

나주시, 농촌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문평 명하햇길 마을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살기 체험을 운영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인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계획 중인 도시민이 농촌마을에서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거주,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농 지식을 얻고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귀농·귀촌분야 정책이다.

올해는 총 6가구, 1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도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24일까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추진 중인 문평명 햇길

주민들은 귀촌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이 마을은 5대째 천연염색 주재료인 ‘쪽’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 공동체인 ㈜명하햇길을 중심으로 32가구, 55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쪽 베기’, ‘쪽 염색 체험·교육 및 제품 판매’, ‘치유음식·치유농업·치유정원 가꾸기’ 등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사업을 통해 마을 숙박동 주방시설 등을 개보수하면서 올해 참가자들에게 더 좋은 귀촌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참가자들은 체류하는 동안 일자리 탐색, 주거지 탐색·결정, 주민 간 융화프로그램 참여 등 농촌에서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숙박은 무료로 제공되며 1인당 매달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김동철 기자

담양, 골밀도 검사 연중 실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주민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사장비를 도입해 연중 운영한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골다공증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골다공증은 활동량이 감소하는 50대 이후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양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검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골밀도 검사는 담양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비용은 만 65세 이상 여성과 만 7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에 한해 1,100원이며 그 외 주민들은 34,77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검사는 민원실 접수 후 의사 상담을 통해 진행되며 검진결과에 따라 처방전 발급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 및 관리 방법 안내,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골다공증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향촌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장성군은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장성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장성교육지원청, (재)장성지역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 아이들 밥상에 안전한 로컬푸드 ‘듬뿍’

장성군이 장성산(産) 농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장성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장성교육지원청, (재)장성지역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방문해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광주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장성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직매장 2층 교육장으로 이동한 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에 전했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 중 과일간식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공

급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장성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유광중 기자

영광,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

이송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 보건소 방문해 접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삼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9월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 7만5천원과 1km당 1천300원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했으며, 야간(00:00~04:00)의 경우 20%의 할증요금까지 부담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군은 주민의 긴급 생명보호 및 응급 차량 이용의 고비용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삼급병원 이송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민선8기 군수공약 사항으로 정하고 지원하게 됐다.

신청 방법은 응급 차량을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검토를 통해 이송경비를 지원하며,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민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응급환자 앰블런스 이송경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병원 간 이송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률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시민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